

經濟力集中 이대로 좋은가?

— 中小企業의 視角에서 —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et's Consider

유 기 영
企協中央會

◇ 集中支援의 背景

우리나라의 經濟力이 얼마나 集中상태에 있는
나? 좀 더 알기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
직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어떻게 一部사람들에게
몰려 있는나.

이 문제는 지난해 우리定期국회에서 論難도 되었고
新聞에 널리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도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經濟力이 너무 少數
의 사람들의 손에 쥐어있고 그 深度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經濟力集中이란 그 集中현상이 경제 각부문에서
質的量的으로 몰려진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所得,
生産, 資金, 市場 등 占有比重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나치게 少數의 사람들에 집중되면 그만큼
富의 편중이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좋지못한, 經濟
的 社會的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經濟力이 재벌그룹이나 大企業들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지나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다.

富가 지나치게 편중되면 中産層의 형성이 어렵게
된다. 中産層이 얇은 經濟構造나 社會構造는 그만
큼 튼튼하지 못하다. 이것은 튼튼한 국민경제, 튼
튼한 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두번째가 産業構造面에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産業間 격차를 심화시켜 끝내는 경제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보
여주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심한 격차가 그 좋
은 예이다.

세번째가 소득의 편중현상이다. 이것은 국민간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또 그것을 加速化함으로
써 社會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것은 제 5 共
和國이 그 가치를 높이쳐든 正義社會 구현의 정신
에도 어긋난다.

우리나라 經濟力집중문제에 국민이 우려를 가지
는 理由는 대체적으로 세가지點을 지적할 수 있는
것 같다. 첫째는 集中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深度가 오늘날 세계에서 그 類例가 없다는 사실
두번째가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미온적
이라는 점, 세째가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지난날의
舊習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바꾸어
말하면 經濟力集中이 가지는 肯定的인 面보다 否定
的인 面이 深化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一定한 범위내의 경제력집중은
肯定的이다. 더우기 우리나라 60년대나 70년대와
같이 經濟건설의 初期段階에서는 긍정적이며 必要
惡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이른바 “不均衡經濟成
長理論”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度가 어
느 限界를 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경제정책면어
서는 너무 균형에만 집착하면 成長이 늦어지고 정
책수행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빠른 成長을 추구하고 成長의 牽引力을 갖는 特定部門에 集中支援하는 이른바 불균형성장 이론이라는 손이 있다. 지난 20년동안의 우리經濟 성장이 이같은 政策바탕 위에서 추구되어 온 것이며 오늘의 과도한 경제력집중 현상이 여기서 연유된 것으로 보아 크게 잘못이 아닐 것이다.

◇集中度 현상

일부 재벌과 대기업들이 銀行돈을 빚내어 銀行株를 사들인다는 보도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며 국민들도 그실 안연실색한 바 컸다.

사실 銀行돈은 거의를 재벌그룹과 대기업들이 휩쓸어 가는 형편이다. 좀 구체적으로 알고보면 主去來銀行 대상업체의 貸出이 금융기관 전체대출의 70%를 쓰고 있다. 1개업체가 은행돈 50억원 이상을 쓰고 있는 대기업이 1백37개업체이고 非재벌그룹 1백97개社를 합친 3백34개기업이 총대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銀行은 1개업체에 自体資本金의 25%이상을 초과대출 할 수 없고 支給보증도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例外규정인 은행감독원의 승인조항을 이용하여 19개대기업이 3兆원을 넘는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지난해 8월말 현재 대기업에 대한 대출현황을 보면 1백개대기업이 10兆4千5百여억원을 쓰고 있는데 이 대출액은 동시점 총대출액 28조6천여억원의 36.4%이다. 이것은 그들 1백개대기업이 1개업체당 1천4백억원 꼴이다. 이때 중소기업부문에 대출된 총액은 5조9천억원이며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分野에는 중소기업 3만여 업체를 포함하여 건설업, 상업, 서서비스업, 운송업 등 48만여 업체가 있고 서비스업 속에는 旅館業, 이발소, 미용원 까지 들어 있는가 하면 일반 家計性 貸出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과 1백개企業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는 그들 1개기업이 대출받은 평균액수 1천4백억원이며 중소기업 4백60여업체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1人當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본 算術的 計算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大企業들의 資金集中현상은 이같은 銀行

뿐만이 아니고 모든 金融기관에서도 같은 현상이다. 短資會社, 信用金庫, 保險會社, 차관자금, 해외지급보증 거기다가 輸出金融, 會社債, 私債까지 습치면 더욱 놀라운 集中현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自己資本 평균율은 18%라 알려지고 있으니 자기자본 50억원일 경우 2백25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셈이다. 이렇고도 銀行돈 빚내어 다시 銀行株를 사들여 銀行까지 손아귀에 집어 넣겠다니 某國會議員이 말하듯 “재벌공화국”이라는 時語도 나올법하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이거니와 재벌과 대기업들의 企業集中 현상도 지나칠 정도에 이르고 있다. 上位 5대재벌이 그 傘下에 거느린 업체수는 77년에 76개였던 것이 79년에는 1백13개로 늘어났다. 이것을 15대재벌로 넓혀서 보면 77년에 1백59개였던 것이 79년에는 2백27개로 팽창되었다.

公定去來法은 이같은 기업흡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 82년 4월 1일, 이 법이 발효된 후에도 1백55개의 중소기업이 이들 재벌그룹에 흡수되었다.

생산과 市場占有率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된 10대재벌기업의 81년도 賣出額이 GNP의 42.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 GNP를 6백억달러로 볼 때 2백50억달러분을 10대재벌이 매출한 셈이다. 물론 이것은 소득액은 아니다. 매출액을 GNP에 비교한데 불과하다. 그러나 그 매출액의 덩치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30대재벌로 넓혀서 보면 그들의 매출액이 GNP의 60%에 이른다. 우리나라 勤勞者중 月10만원以下 소득자가 59%라는 점과 비교할 때 經濟力의 집중도가 어느정도인가에 짐작이 간다. 어느 統計에 의하면 10대재벌의 소득액 즉 부가가치가 GNP의 8.6%라 하는데 사실은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見解도 있는 것은 이 附加價值가 73년에 5.1%에서 78년에는 10.9%로 나타난 통계자료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上位 11개재벌그룹의 평균매출액이 GNP의 2%라 하는데 매출액 1위인 某非公開재벌은 8.2%이다. 이에 比하면 세계대기업 랭킹 上位층에 속하는 미국의 「액손」 매출액이 GNP의 3.7%이고 GM자동차가 2% 안팎이다. 또 일본의

「도요다」나 「닛산」도 매출액이 GNP의 1.4%이며 이들 기업들은 모두가 株式이 대중화되어 사회화된 대기업들로서 그 뿌리가 국민층 깊숙이 내려져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그것이 지나치게 深化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같은 과도한 集中力현상은 이들 대기업회사들이 차지하는 鑛工業出荷額이 反證하고 있다. 이出荷額은 해마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上位 5대재벌회사는 전체광공업 출하액중 점유율이 77년에 14%, 79년에 16.2%로 늘어났고 10대 재벌로 볼 때는 77년에 20.4%, 79년에는 22.6%, 30대企業으로 넓혀서 볼 경우 77년 32%가 79년에는 35%로 높아졌다.

또한 市場獨과점 상황을 볼 때도 3개社의 시장 독과점율이 50% 이상인 업종이 74년에 70%가 80년에는 90% 이상에 이르게 되었고 생산력 집중을 초래하여 재벌기업의 生産이 47.9%로 알려지고 있다.

◇ 中小企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즉 中小企業의 比重이 떨어지고 있다. 80년도 우리나라 전체사업체 수는 48만 6천 8백 98개업체인데 이중 대기업은 3천 2백 3개업체로 0.3%, 중소기업 99.7%, 이것을 광공업에서 볼 때 대기업이 1천 94개업체로 전체광공업의 3.4%, 18년 전인 63년의 중소제조업 업체비중 98.5%에서 1.9%가 떨어졌고 종업원 비중도 63년 62.3%에서 80년에는 49.4%로 12.9%나 크게 떨어졌다.

생산액도 63년 56.3%가 80년에는 32%로 24.3%나 떨어졌고 부가가치도 63년 49.8%가 80년에는 35.1%로 14.7%가 내렸다. 선진공업국의 경우 이같은 중소기업비중이 모두가 50% 이상인데 비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은 현재 모두가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60%선에 있어야함이 적정선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오늘날 經濟大國이니 또는 經濟強國이라는 일본이나 西獨, 伊太利, 台灣까지도 그 경제력은 저변에 두껍게 깔려 있는 水準높은 中小企業이 主役이 되어 있다. 대기업이 대기업답게 存立하기 위해서

는 튼튼한 中小企業의 기반위에 존립해야 한다.

재벌대기업들의 經濟力 집중현상은 특히 제조업 분야의 그것은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의 몫을 그만큼 잠식하는 部門이 크다. 이같은 잠식은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그만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이 사용해야 할 자금을 재벌대기업이 쓰고 중소기업이 賣出해야 할 市場을 그들이 생산하는 製品(이 제품은 사실 중소기업이 생산해야 할)이 점유하고 재벌대기업이 이른바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을 吸收하여 企業集中을 가져오는 예 등이다.

이같은 중소기업 분야잠식은 결과적으로 中小企業으로 부터 필요한 中間製品이나 部品를 공급받음으로써 存立하는 大企業이 그것을 공급받을 下部企業을 스스로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大企業들의 이같은 독점에 의하여 중소기업은 경영이 어렵게 되고 따라서 값싸고 우수한 中間제품이나 部品를 공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先進工業國들의 대기업이 中小企業 事業分野를 잠식하거나 침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 下請企業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을 키워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經濟力의 過度한 集中은 모든 資源의 편중을 가져와서 그것의 효율화를 저해한다. 이를테면 자금면에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재벌과 대기업이 온갖 자금을 끌어다가 不動產 투기를 일삼고 있을 때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休廢業을 여지없이 하는 궁지에 몰린다.

우리나라 組立產業이 中間생산물의 생산과 加工 과정이 脫落되고 수입원자재의 최종가공 조립시설에만 집중되는 경향이나 部品專門생산의 낙후, 중소기업과 系列化된 部品製造業의 부진을 초래하였고 따라서 기술축적, 생산성향상, 부가가치의 제고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원자재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것이나 그것을 소화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의 위축은 결국 大企業의 存立기반을 弱화시키는 것이다.

지난 20년동안 재벌과 대기업들은 特惠下에서의 過肥大로 인한 경제적 우위지 위의 남용으로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왔다. 80년대 새 경제시대에 들어서도 지난날의 팽창주의 體質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舊習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